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일정 등

ALL ABOUT LAW SCHOOL

로스쿨 인사이드



KNU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들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어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과도기에 있다.
디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가렸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익과 명분만이 아닌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이다.

“법조인은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한다.”

CONTENTS



PART. 01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 04 법학적성시험 개요
- 07 각 영역의 문항 유형 소개
- 18 LEET 고득점 후기

PART. 02 ALL ABOUT LAW SCHOOL

- 20 법조인 양성 시스템 비교
- 21 숫자로 보는 로스쿨
- 22 교육과정 소개
- 24 실무교육
- 25 장학금 / 지역균형인재 / 특별전형 제도
- 27 변호사 시험
- 28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 29 통계로 보는 2016학년도 합격자
- 30 로스쿨 입학수기

36 [불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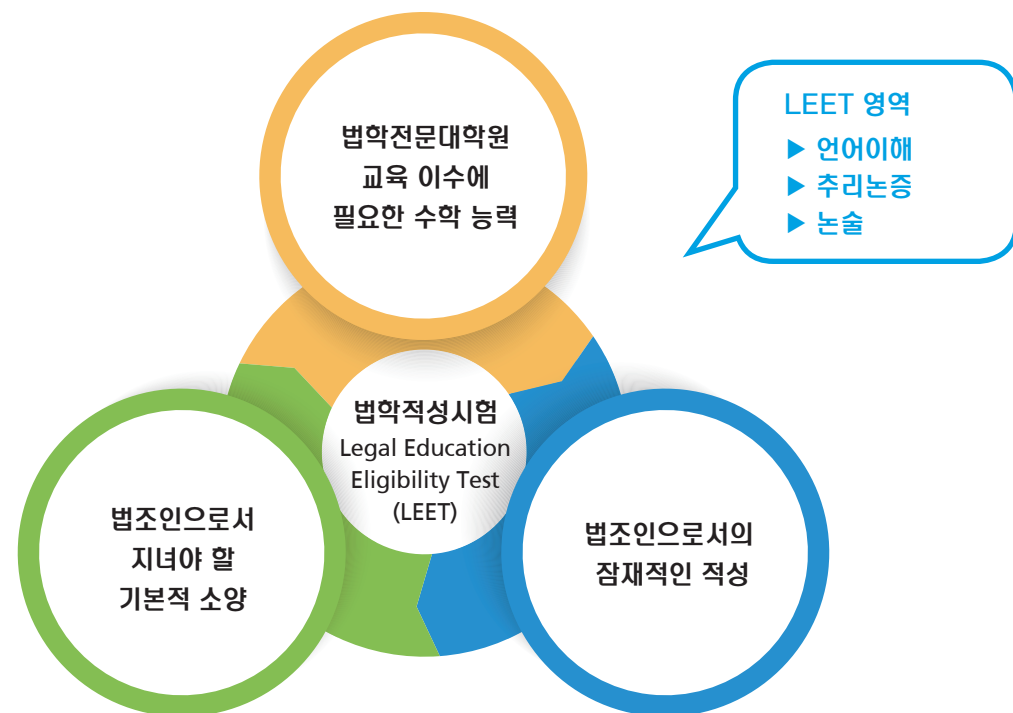


발 행 일 2016년 3월
등 록 번 호 2289-0262
발 행 인 오수근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 행 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 자 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 쇄 삼화인쇄(주)

법학적성시험 개요

1.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 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법학적성시험 결과의 활용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학부 성적, 영어 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시험 일시 및 장소

- *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6. 8. 28 (일)에 실시함.
-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함.
 - ‘서울’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지망,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_ 수험표 출력 시(8. 9.~28.) 배정된 학교 확인

4.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5	09:00 ~ 10:20 (80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35	11:00 ~ 12:50 (110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3	논 술	2	14:00 ~ 16:00 (12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10분	

5.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일정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2016. 2. 23 (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2016. 7. 5 (화) ~ 7. 14 (목)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LEET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16. 8. 9 (화) ~ 8. 28 (일)	수험표 교부	시험당일 지참
2016. 8. 28 (일)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16. 8. 28 (일) ~ 8. 31 (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접수	LEET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16. 8. 29 (월) ~ 9. 12 (월)	문제 및 정답 이의심사	
2016. 9. 13 (화)	최종 정답 발표	
2016. 9. 20 (화)	성적발표	LEET 홈페이지

6. 법학적성시험 점수 체제

성적 제공: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만 제공. 논술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활용여부를 결정함.

– 영역별 합산점수는 발표하지 않으며,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백분위: 백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2015학년도〉				〈2016학년도〉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0.0 이상 ~ 75.0 미만	27	0.3	0.3	70.0 이상 ~ 75.0 미만	37	0.5	0.5
65.0 이상 ~ 70.0 미만	449	5.5	5.9	65.0 이상 ~ 70.0 미만	453	6	6.5
60.0 이상 ~ 65.0 미만	728	9	14.8	60.0 이상 ~ 65.0 미만	658	8.7	15.1
55.0 이상 ~ 60.0 미만	1,617	19.9	34.8	55.0 이상 ~ 60.0 미만	1,521	20.1	35.2
50.0 이상 ~ 55.0 미만	1,846	22.8	57.5	50.0 이상 ~ 55.0 미만	1,160	15.3	50.5
45.0 이상 ~ 50.0 미만	1,047	12.9	70.4	45.0 이상 ~ 50.0 미만	1,634	21.6	72.1
40.0 이상 ~ 45.0 미만	1,159	14.3	84.7	40.0 이상 ~ 45.0 미만	780	10.3	82.4
35.0 이상 ~ 40.0 미만	531	6.5	91.3	35.0 이상 ~ 40.0 미만	750	9.9	92.3
30.0 이상 ~ 35.0 미만	420	5.2	96.4	30.0 이상 ~ 35.0 미만	373	4.9	97.2
25.0 이상 ~ 30.0 미만	186	2.3	98.7	25.0 이상 ~ 30.0 미만	106	1.4	98.6
20.0 이상 ~ 25.0 미만	67	0.8	99.6	20.0 이상 ~ 25.0 미만	78	1	99.6
15.0 이상 ~ 20.0 미만	27	0.3	99.9	15.0 이상 ~ 20.0 미만	19	0.3	99.9
10.0 이상 ~ 15.0 미만	5	0.1	100	10.0 이상 ~ 15.0 미만	8	0.1	100
5.0 이상 ~ 10.0 미만	0	0	100	5.0 이상 ~ 10.0 미만	0	0	100
0.0 이상 ~ 5.0 미만	3	0	100	0.0 이상 ~ 5.0 미만	2	0	100
계	8,112	100		계	7,579	100	

* 언어이해 영역의 표준점수 급간별 빈도, 비율 및 누적 비율

〈2015학년도〉				〈2016학년도〉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5.0 이상 ~ 80.0 미만	5	0.1	0.1	80.0 이상 ~ 85.0 미만	1	0	0
70.0 이상 ~ 75.0 미만	119	1.5	1.5	75.0 이상 ~ 80.0 미만	16	0.2	0.2
65.0 이상 ~ 70.0 미만	342	4.2	5.8	70.0 이상 ~ 75.0 미만	72	1	1.2
60.0 이상 ~ 65.0 미만	627	7.7	13.5	65.0 이상 ~ 70.0 미만	489	6.5	7.6
55.0 이상 ~ 60.0 미만	1,623	20	33.5	60.0 이상 ~ 65.0 미만	705	9.3	16.9
50.0 이상 ~ 55.0 미만	1,343	16.6	50.1	55.0 이상 ~ 60.0 미만	1,080	14.3	31.2
45.0 이상 ~ 50.0 미만	1,940	24	74.1	50.0 이상 ~ 55.0 미만	1,271	16.8	48
40.0 이상 ~ 45.0 미만	884	10.9	85	45.0 이상 ~ 50.0 미만	1,782	23.5	71.5
35.0 이상 ~ 40.0 미만	607	7.5	92.5	40.0 이상 ~ 45.0 미만	900	11.9	83.4
30.0 이상 ~ 35.0 미만	422	5.2	97.7	35.0 이상 ~ 40.0 미만	643	8.5	91.9
25.0 이상 ~ 30.0 미만	106	1.3	99	30.0 이상 ~ 35.0 미만	441	5.8	97.7
20.0 이상 ~ 25.0 미만	56	0.7	99.7	25.0 이상 ~ 30.0 미만	117	1.5	99.2
15.0 이상 ~ 20.0 미만	21	0.3	100	20.0 이상 ~ 25.0 미만	46	0.6	99.8
10.0 이상 ~ 15.0 미만	2	0	100	15.0 이상 ~ 20.0 미만	7	0.1	99.9
5.0 이상 ~ 10.0 미만	0	0	100	10.0 이상 ~ 15.0 미만	3	0	100
0.0 이상 ~ 5.0 미만	2	0	100	5.0 이상 ~ 10.0 미만	2	0	100
계	8,099	100	100	계	7,575	100	100

*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 급간별 빈도, 비율 및 누적 비율

각 영역의 문항 유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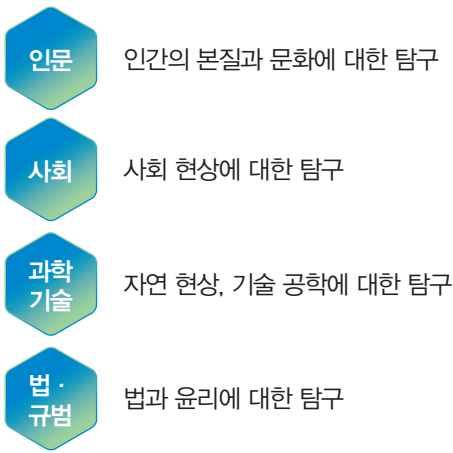
1. 언어이해

① 출제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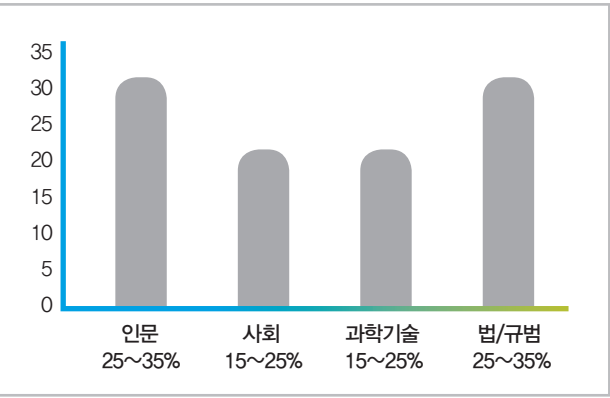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언어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함.
- 정규 대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특정 분야의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지식이나 내용을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은 제외함.
- 인문, 사회, 과학기술, 법·규범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제시문으로 하여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문항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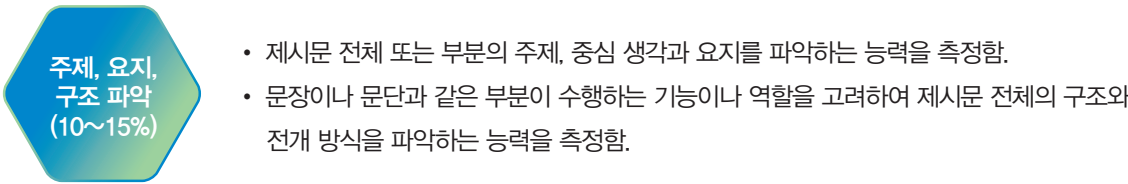
* 내용 영역



〈내용영역별 출제경향〉



* 문항 영역



의도, 관점, 입장 파악 (10~15%)

- 글쓴이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이 가진 의도, 관점, 입장,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20~30%)

-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정보의 추론과 해석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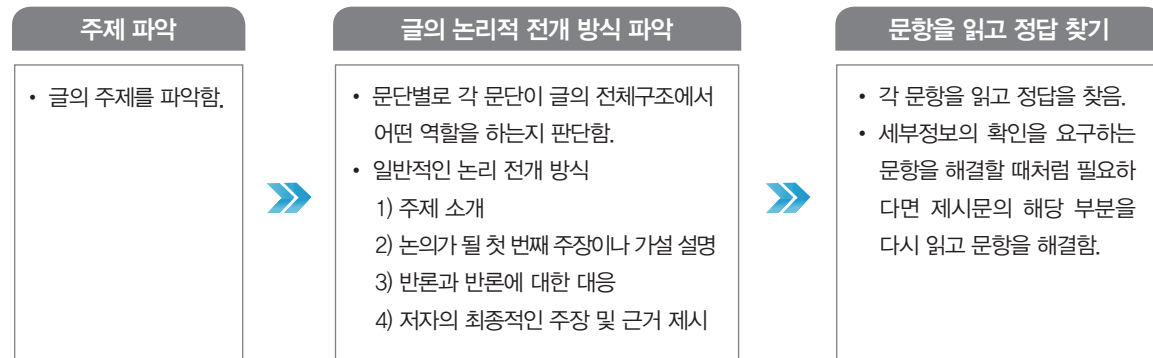
-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정보의 평가와 적용 (20~30%)

-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3. 제시문을 읽는 순서

* 문항 해결 방법



2. 추리논증

1. 출제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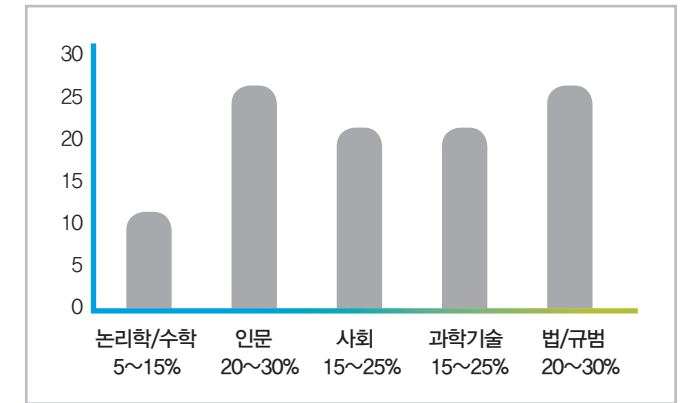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추리 및 논증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2. 문항 유형

* 내용 영역

- 논리학·수학 ※하단 참고
- 인문 인간의 본질과 문화
- 사회 사회현상에 대한 탐구
- 과학·기술 자연 현상, 기술 공학
- 법·규범 법과 윤리에 대한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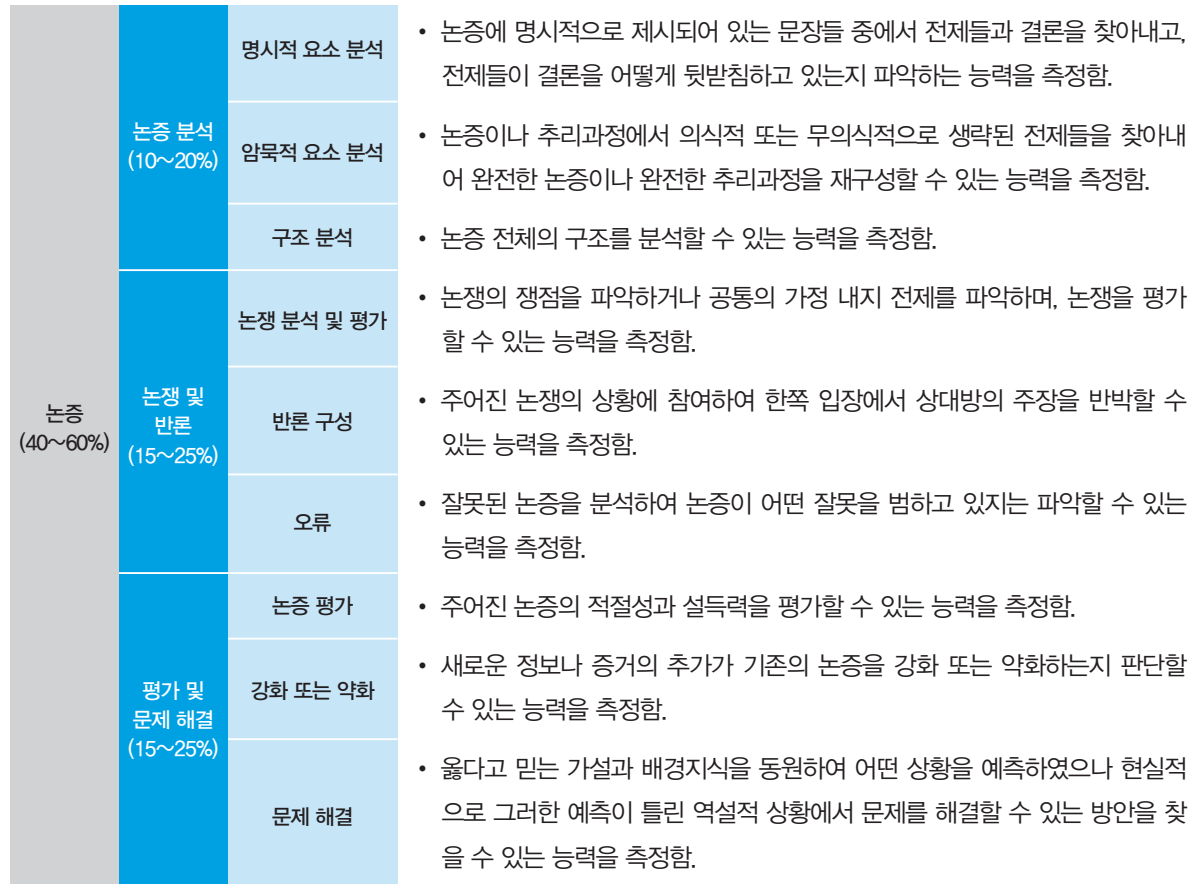
〈내용영역별 출제경향〉



※ '논리학·수학'은 본래 내용 영역의 한 분야가 아니라, 추리의 형식적 원리를 제공해주는 '형식'과학임. 그러나 '논리학·수학'은 추리 문항의 해결에 필요한 원리를 제공해준다는 중요성과 추리 문항에서 다루는 소재 중 인문, 사회, 과학기술, 법·규범에 속하지 않는 일상적 소재를 분류상 포함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 때문에 내용 영역의 한 분야로 포함시켰음.

* 문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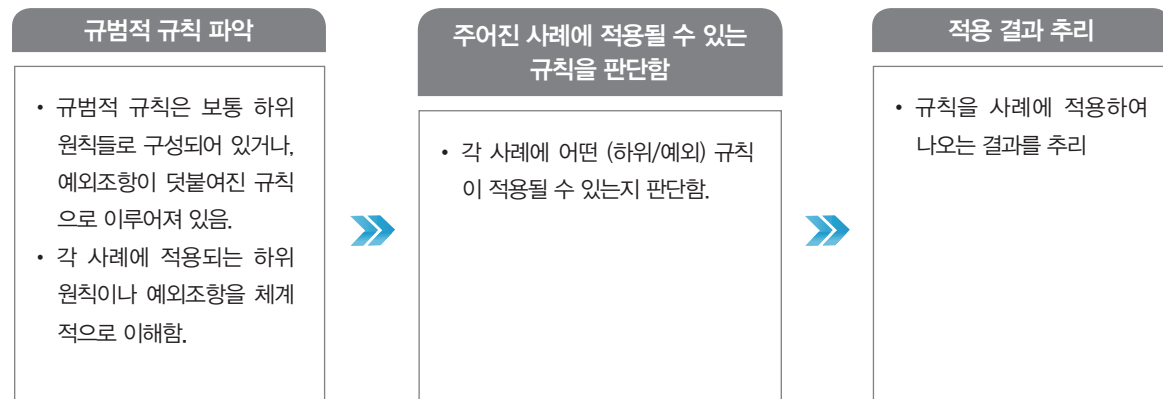
추리 (40~60%)	언어 추리 (20~30%)	합축 및 귀결	•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합축되는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원리 적용	• 규범적 규칙이나 일반 원리를 해당되는 사례에 적용하여 올바르게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사실관계추리	• 부분적인 정보나 증거가 주어질 경우 이로부터 특정한 사실관계를 추리하거나 특정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함.
	모형 추리 (20~30%)	형식적 추리	•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형식논리의 추론규칙을 이용해서 연역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어떤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를 찾는 능력을 측정함.
		논리 게임	• 제약조건 하에서 올바르게 항목을 배열하거나 연결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부분적인 정보나 증거가 주어졌을 때 참인 정보나 참일 수 있는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수리 추리	• 수, 도형, 표, 그래프로 표현된 비언어적 정보로부터 추리나 간단한 수리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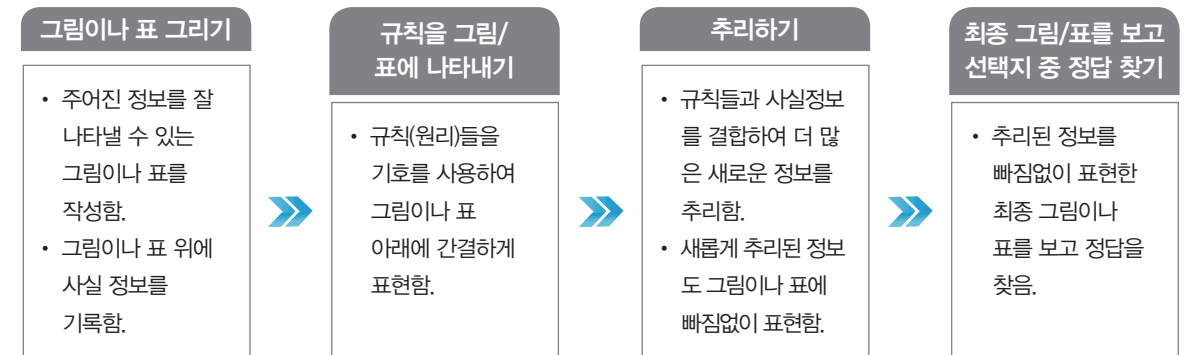
③ 문항 해결 방법

1) 추리

* 추리 - 언어 추리 - 원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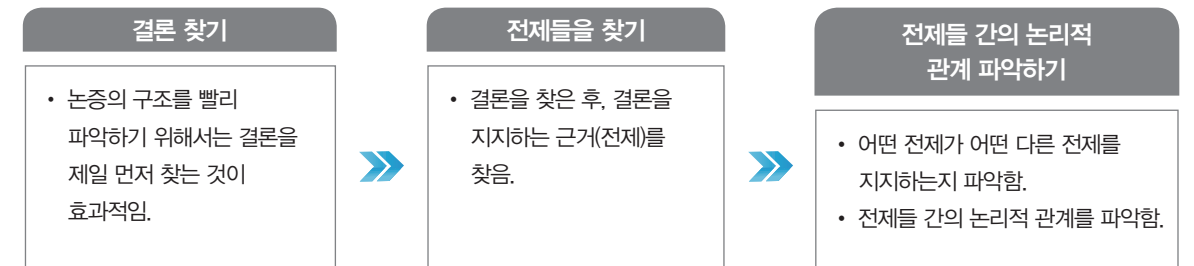


* 추리 - 모형 추리 - 논리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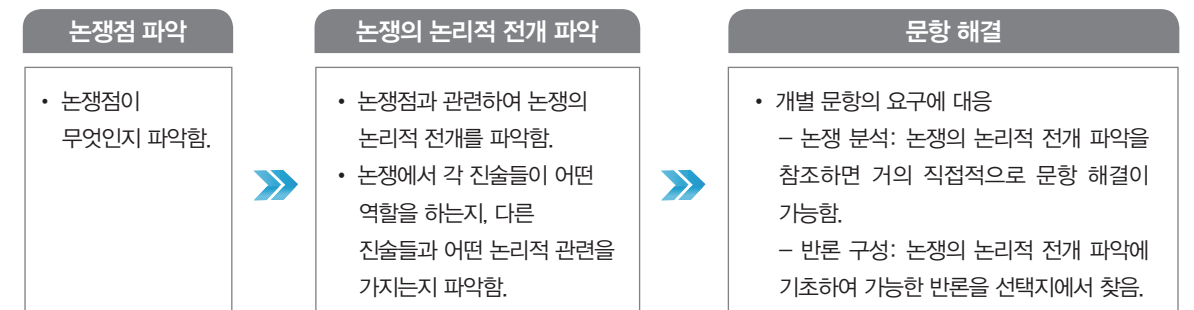


2) 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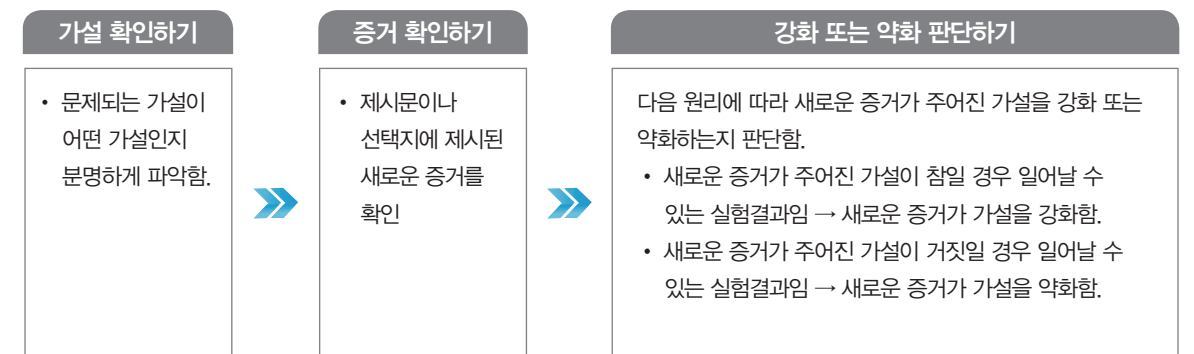
* 논증 - 논증 분석



* 논증 - 논쟁 및 반론



* 논증 - 평가 및 문제 해결 - 강화 또는 약화



3. 논술 영역

① 출제 기본방향

- 논술 영역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분석적·종합력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 논술 영역의 제시문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며,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 응용력과 문제 해결력이 요구되는 문항을 출제함.
- 출제 원칙
 -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요약·종합, 논증 분석·추론, 논증 평가, 적용·발전 등 다양한 성격의 논제들 중 2문항을 출제함.
 - 특정 전공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제외함.
 - 제시문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그 가치가 검증된 고전 텍스트 및 내용에 깊이가 있고 입체적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현대의 우수한 저작물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문항 유형

* 논술 영역 문항 분류표

내용 영역 \ 문항 유형	분석		구성		
	논제 분석	제시문 분석	논증	창의	표현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1) 내용 영역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텍스트

2) 문항 유형

- 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
 - 논제 분석: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 제시문 분석: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 구성: 사고를 구성하여 글로 완성하는 능력을 측정
 - 논증: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
 - 창의: 새롭고 적절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
 - 표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

[언어이해] 문항 예시 (2009학년도 23~25번)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일 학문이라고 자처해 왔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에는 철학적 앎이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그러나 철학의 자기도취는 종종 철학 자체 안에서 도도전에 직면하거나, 특히 회의주의가 그 도전의 중심에 있다. 궁극적 진리의 인식이 소명인 철학에서 의심을 생명으로 하는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철학사 초기에 나타난 고르기아스의 세 명제는 회의주의의 고전적 전형이다. 그에 따르면 첫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둘째,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며, 셋째, 어떤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 앎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반지성주의 성향의 사람에게 이 극단적 견해는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 모순이 있다. 즉 고르기아스는 첫째, 극단적 회의의 주체인 자신이 존재함을, 둘째,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자신이 알고 있음을, 셋째,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앎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즉시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현대의 경우 극단적 회의주의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可謬主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특히 모든 철학적 명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철학적 지식 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가 무기로 삼는 것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Münchhausen-Trilemma)이다. 이 트릴레마는 말을 타고 가다가 수렁에 빠진 뮌히하우젠 남작이 자신의 머리채를 위로 잡아당겨 빠져나오려 했다는 우화를 빗댄 것이다. 알베르트에 따르면 모든 하위

명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다음 세 오류 중 하나를 반드시 범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 무한 소급: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다른 상위 명제를 설정하지만, 이 제2의 명제는 제3의 명제를, 제3의 명제는 제4의 명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식으로 상위 명제에 대한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순환 논증: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2의 명제를 끌어들이지만, 이 제2의 명제를 다시 제1의 명제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하므로 이 역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 절차 단절: 계속되는 정당화 요구의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화 과정의 한 특정 단계에서 모든 논의를 중지시키고 하나의 명제를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그마로 설정한다. 이는 합리적 논변의 지속을 단절하는 것이므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A] 이 트릴레마의 위력은 실로 막강해서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철학적 정당화는 일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명제의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알베르트 역시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그는 이 트릴레마의 '절대적 정당성'에 '최종적으로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실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즉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행적 모순의 발견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증명 방식이 바로 '귀류법적 증명'이다. 이 증명 방식은 명제 p의 모순 명제인 ~p가 언명되는 순간 ~p는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p의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즉 '확실한 인식은 없다'라는 알베르트의 명시적 주장은 '확실한 인식

은 없다는 인식은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함축하므로, 그가 부정하려 한 '확실한 인식은 있다'라는 명제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가류주의적 회의에 맞서 확실한 명제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자기 파괴로 귀결되므로 그 자체가 철학의 궁극적 사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 독단론에 빠지기 쉬운 철학에 대해 회의주의는 생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의주의의 강력한 도전은 철학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을 갖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철학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가류주의'는 '수행적 모순'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 ② '가류주의'는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③ '최종적 정당화'는 '수행적 모순' 때문에 어렵다.
- ④ '귀류법적 증명'은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 ⑤ '귀류법적 증명'은 '수행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정답] ④
[문항유형] 인문 -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난이도] 중하

24. 위 글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사에 등장한 회의주의는 모두 논박될 수 있다.
- ② 회의주의는 제일 학문인 철학의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다.
- ③ 회의주의는 철학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한다.
- ④ 회의주의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 ⑤ 회의주의는 극단적일 경우 오류이지만 철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정답] ⑤
[문항유형] 주제, 요지, 구조 파악
[난이도] 하

25. <보기>의 ㄱ, ㄴ을 [A]의 개념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 [보 기] —
- ㄱ. 우리의 마음에는 '완전한 존재'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다.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인 신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
- ㄴ. 식물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식물도 생명체이고, 모든 생명체는 '삶에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에의 의지'를 가지는 존재는 소중하며, 이러한 존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연의 이법(理法)이기 때문이다.

그	ㄴ
① 무한 소급	순환 논증
② 무한 소급	절차 단절
③ 순환 논증	무한 소급
④ 순환 논증	절차 단절
⑤ 절차 단절	무한 소급

[정답] ④
[문항유형] 정보의 평가와 적용
[난이도] 상

[추리논증] 문항 예시 (2014학년도 3번)

3.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칙]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후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권리 발생의 주장이나 그 사후 소멸에 관한 주장에 관한 다툼이 없으면 권리의 발생이나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보 기]

- ㄱ.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 ㄴ.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빌렸지만 그 후에 갚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으로부터 빌린 돈을 을이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을에게 있다.
- ㄷ.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당신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 ㄹ.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100만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당신이 빌려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①
[문항유형] 법·규범 - 원리적용
[난이도] 중

[추리논증] 문항 예시 (2015학년도 29번)

29. 다음 논증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경학적 불균형이나 외상 때문에 뇌 기능이 잘못될 수 있고, 이것이 폭력 행위나 범죄 행위의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은 그러한 원인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될지 우려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신경 과학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때, 그때는 이미 뇌가 그것이 발생하도록 만든 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내 스스로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우리는 개인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뇌는 구분될 수 있다. 뇌는 결정되어 있지만, 책임 개념은 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뇌와 달리 사람들은 자유롭고,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 신경 과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의 원인을 궁극적으로 뇌 기능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최신의 신경 과학적 지식과 법적 개념이 갖고 있는 가정들에 기반을 두고서 다음의 원칙을 믿는다. 뇌는 자동적이고 법칙 종속적이며 결정론적 도구인 반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행위자들이다. 교통 상황이 물리적으로 결정된 자동차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에 발생하는 것처럼, 책임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책임이란 사회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개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책임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이란 당신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타인이 당신의 행동에 대해 부과하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때 규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상호작용으로부터 행동의 자유라는 개념이 발생한다.

[보 기]

- ㄱ. 우리의 선택이나 그에 따른 행위는 미시적인 차원에 속하는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미시적 요소들을 완전히 이해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할지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ㄴ. 나는 나의 육체와 구별되지 않는다. 뇌가 결정론적으로 작동한다면 나의 행동 역시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모든 이의 행동이 각기 결정되어 있다면, 물리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의 상호작용 또한 결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달리 행동할 여지를 갖지 않는다.
- ㄷ. 사람들의 행동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관행에 불과하며, 그런 사회적 관행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 인간이 실제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④
[문항유형] 반론구성
[난이도] 중

[추리논증] 문항 예시 (2016학년도 27번)

27. A, B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다음은 모기가 인간의 혈액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섭취한 혈액 속의 액체성분을 꿈무늬로 분비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들이다.
- A: 인간의 혈액은 적혈구 등의 세포성분과 혈장으로 불리는 액체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기가 인간의 혈액을 섭취할 때 단백질 성분이 풍부한 세포성분을 더 많이 몸속에 저장할수록 알을 더 많이 생산한다. 따라서 모기가 인간의 혈액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액체성분을 분비하는 것은 더 많은 세포성분을 몸속에 저장하기 위한 행동이다.
 - B: 급격한 온도 변화는 곤충의 생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평소 인간보다 낮은 체온을 가진 모기는 인간의 혈액을 섭취할 때 고온 스트레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모기가 인간의 혈액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액체성분을 분비하는 것은 증발 현상을 이용하여 체온 상승을 조절하기 위한 행동이다.

[보 기]

- ㄱ. 세포성분이 정상이고 모기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을 섭취한 모기로부터 분비되는 액체성분의 양보다, 세포성분이 정상보다 적고 모기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을 섭취한 모기로부터 분비되는 액체성분의 양이 많다면, A는 강화된다.
- ㄴ. 세포성분이 없고 인간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을 섭취한 모기로부터는 액체성분이 분비되지만, 세포성분이 없고 모기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을 섭취한 모기로부터는 액체성분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B는 강화된다.
- ㄷ. 세포성분이 정상이고 모기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을 섭취한 모기로부터 분비되는 액체성분의 양보다, 세포성분이 정상보다 적고 인간의 체온과 같은 온도의 혈액을 섭취한 모기로부터 분비되는 액체성분의 양이 많다면, A와 B 모두 강화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문항유형] 과학기술 – 강화 또는 약화
[난이도] 상

LEET 고득점 수기



강원대학교
로스쿨 5기 강대규

“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로스쿨 입학 요소인 LEET와 논술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을 읽으면 사고력 증진과 논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금태섭 변호사의 <디케의 눈>, <확신의 함정>, 신주영의 <법정의 교수>, 김지룡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등은 리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들이다. 책을 읽다보면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 로스쿨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들 것이다.

”

“

LEET 실전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학원 강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강의를 많이 듣기보다는 기본강의 정도만 듣고, 대신 시험을 여러 번 쳐보면서 시간 관리하는 법을 습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LEET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글을 빨리 읽는 사람과 빨리 읽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점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좋은 스터디를 꾸려서 함께 실천처럼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고 서로 검토해보는 방식을 추천한다.

”

“

시간 내에 푸는 연습과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솔직히 리트 준비를 많이 못 했다. 회사를 다니느라 다른 친구들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갔다. 1시간만 집중해서 기출문제를 5문제씩 매일 풀었다.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보니, 평소에 잘 틀리는 유형이 나오더라. 점심시간이나 화식 가기 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오답노트를 봤다. 퇴근 한 후에서도 1~2시간씩은 공부했다. 리트는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풀었더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 향상되더라.

”

“

시간 단축을 위한 Short-cut 찾아야

LEET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출문제를 실물크기로 출력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풀이하는 것이다. 한 번 틀린 문제는 해설을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풀이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short-cut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따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시험 당일에 지참했다. 스스로 생각했을 때 평소 실수가 잦은 편이라면 OMR 카드 마킹 연습이 필수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평소 잘 하던 것도 실수할 수 있으므로 반복 연습으로 대비하는 게 좋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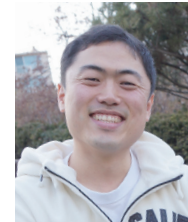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로스쿨 6기 김하영

“

시험 당일, 과한 긴장은 오히려 독

리트는 단순히 외운 것을 쏟아내는 시험이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보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일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의 긴장은 시험에 도움이 되지만, 과한 긴장은 오히려 머릿속을 꼬이게 할 수 있다.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긴장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하다.

”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6기 문건협

“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야

리트의 경우 공부를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않는다. 다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가 생긴다. 추리를 예로 들면 여러 가지 유형과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패턴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평소 약하다고 생각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잘 풀리지 않으면 과감하게 넘어가야 한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흐를 뿐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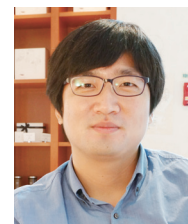
원광대 로스쿨
로스쿨 6기 김팽찬

“

쉬운 문제부터 접근해야

다짜고짜 1번부터 풀기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푼다는 생각으로 풀어나가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가는 시간 분배에 실패하게 된다. 요령껏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자.

”



전남대학교
로스쿨 5기 김용석

“

기출문제, 한번을 풀더라도 꼼꼼하게 풀어야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를 풀 때 단 한번을 풀더라도 꼼꼼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5지 선다형 문제에서 정답이 3번이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보기인 1,2,4,5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시험의 소재만 바뀔 뿐, 문제출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을 만드는 방식을 익히면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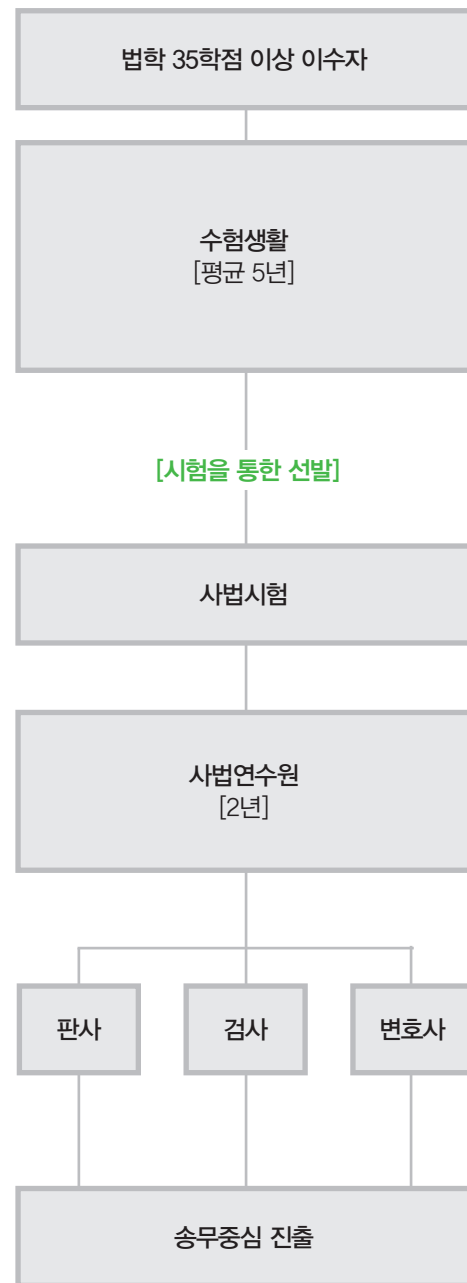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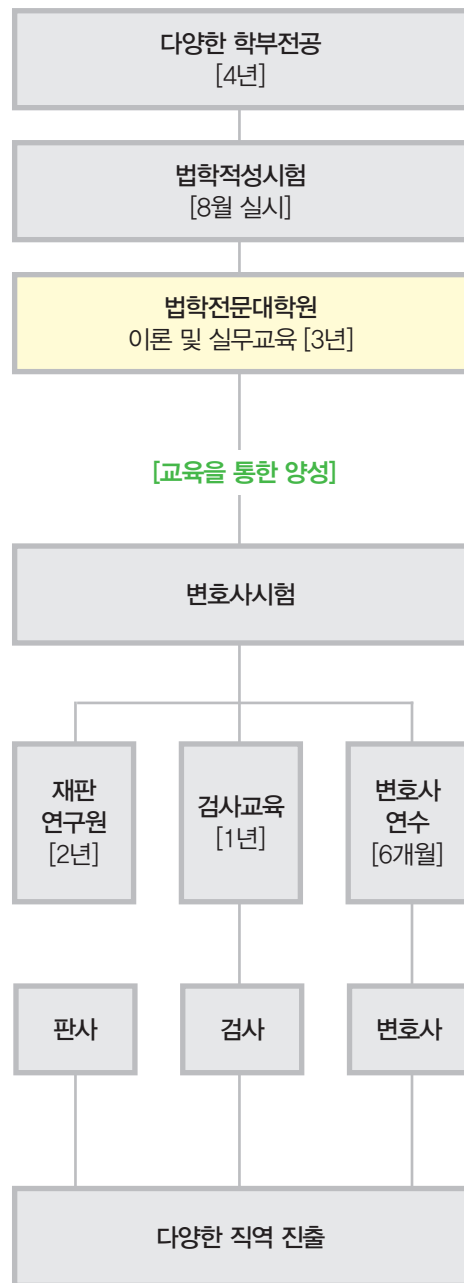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5기 이지승

법조인 양성 시스템 비교

사법시험 제도 <2017년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숫자로 보는 로스쿨

» 입학정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원화 및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를 거쳐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됐다.

구 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입학정원: 명)

»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 6.3명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확보

»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공간 등 구축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 학생정원의 70%를 한 번에 수용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도서 8만권 이상 확보

»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 (현재 학교별로 최고 19.4% ~ 최대 166% 확보)

» 연구 시설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45% 이하로 유지
-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율 30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 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하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이를 통하여 배양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유능한 실무경력 교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제공

학제적 · 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함.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 교육과정개요

이론교육

- 기본법학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

구 분	내 용
공법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항목

-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 역사, 사회와 연관된 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과제에 대한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목

구 분	내 용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인접과목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

- 전문법학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법무,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존 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실무교육

- 필수실무(5개)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 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구 분	내 용
법조윤리	법률가의 역할과 윤리에 관해 역사적 · 비교적 관점도 동원하면서 현재의 법제와 실태를 검토 · 분석하고, 변호사법 · 변호사윤리 등의 규정에 관련된 사례도 분석하여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를 기르는 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법령, 판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
법문서의 작성	계약서, 유언서,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의 법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첨삭지도 등을 통해 가르치는 과목
모의재판	헌법, 민사, 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실습과정	• 의뢰자를 면접, 상담, 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론(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여링(Lawyering) • 실무가 출신 교원의 감독, 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을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 내용의 예비적 청취,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해결안의 검토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 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인턴십(Internship)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 규정됨.

» 특성화 프로그램

- 인적 · 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됨.

학교명	분야	학교명	분야	학교명	분야
강원대	환경법	서울시립대	조세법	전북대	동북아법
건국대	부동산 관련 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제주대	국제법무
경북대	IT법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중앙대	문화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즈니스와 법, 의료 · 과학기술과 법	충남대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영남대	공익 · 인권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부산대	금융 · 해운통상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 · 문화산업법무, 공익 · 소비자인권법무
서강대	기업법(금융법)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 · 인권법, 기업 · 금융법	전남대	공익 · 인권법		

»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3년의 교육과정 중 20개 과목 이상의 외국어 강의 개설, 풍부한 국제적 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 확보,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위, 학술대회 및 연구 등)

실무교육

» 기관별 실무수습 기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은 판사, 검사 등 현직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경찰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실시되는데 일부 학생은 실무실습을 통해 연수기관에서 채용이 확정되기도 한다.

구 분	내 용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1,2,3학년생
실습기관	•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체결 기관(법원, 국회, 국세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방부, 사법연수원 등) • 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등), 법률사무소 • 기업(삼성, LG, KT, SK, CJ, 효성 등)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금융기관 등
실습기간	동계/하계 방학 중 1주~4주
학점인정	학교별 1학점~2학점 인정

» 리걸클리닉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실습식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생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리걸클리닉 소송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비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실제 법률상담과 소송을 수행, 소장, 준비서면 작성 등을 통해 실무 능력 함양할 수 있다.



장학금 / 지역균형인재 / 특별전형 제도

» 등록금 / 장학금 제도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 (2014학년도)

(단위: 천 원, %)

구 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최고	20,840	11,443	74.0	13,998
	평균	15,321	6,377	40.6	8,944
	최저	9,650	2,435	23.6	4,013
의학전문대학원	최고	21,836	6,958	34.1	18,043
	평균	15,556	3,262	20.5	12,294
	최저	9,830	1,209	8.0	7,698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28,754	5,760	33.0	27,753
	평균	19,906	2,916	17.2	16,989
	최저	9,265	1,001	3.5	6,208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은 충분한 장학제도가 있어 실질등록금은 일반대학원 수준이다.

※ 참고로 2015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현황을 보면 전체 법전원 연간 등록금은 평균 16,378천 원이며, 장학금 지급률은 36.2% 수준이다.

— 국·공립 법전원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 원 수준(장학금 지급율: 22.7%~47.9%)이며 사립법전원의 연간 등록금은 1,600~2,000만 원 수준(장학금 지급율: 27.8%~57.2%)

※ 참고 _해외로스쿨 1년 등록금 비교 (2014년 기준)

미국	일본	캐나다
\$53,085	¥150~250	\$17,417
한화: 약 58,000천 원	한화: 약 14,000~23,000천 원	한화: 약 19,000천 원

» 지역균형인재 선발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방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음.

- 강원,제주(2개교) : 입학정원의 10% 이상 선발
- 경북,부산,전남,전북,충남,충북(9개교) :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

» 특별전형 제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취약 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입학 인원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124명(5.88%)	134명(6.41%)	128명(6.10%)	132명(6.37%)	133명(6.38%)	139명(6.57%)

매년 선발인원의 약 6~7%(평균 132명)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경쟁률 약 3:1)

•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매년 약 132명의 학생을 특별전형 제도로 선발해, 이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2016학년도 특별전형 유형(지원자격) 분류

분류	지원자격
신체적 취약	3급 이상, 4급 이상, 5급 이상, 장애등급 제한 없음(1~6급), 자녀포함(4급 이상)
의상자	신체장애 4급 이상, 자녀포함(경제적 취약), 등급 제한 없음(1~9급)
경제적 취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자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및 자녀,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비수급자 및 자녀, 차상위 우선돌봄 자격자 및 자녀,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및 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3급 이상, [본인] 4급 이상, [본인] 5급 이상, 장애등급 제한 없음(1~7급), 장애등급 제한 없음(1~7급)(경제적 취약), 자녀포함(경제적 취약)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경제적 취약)
사회적·문화적 취약	다문화가족 자녀(경제적 취약), 농어촌지역 출신자,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인정된 자, 만 19세 이전 부모 모두/일방이 사망한 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허가 받은 자 중 귀화자 및 자녀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지)청장이 대학입학특별전형자로 인정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 - 요양·휴업·장애·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본인이 산업재해 3급 이상인 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산업재해 3급 이상으로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사실상 부양능력 없는 자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경제적 취약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급 이상의 재해로 판정받은 자	

※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법전원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각 법전원 행정실/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특별전형 입학수기: 50p 참고

변호사 시험

»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단,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 시험 방법

-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
-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

※ 참고로 사법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발 인원을 매년 감축한 후 2016년도 1차 시험 및 2017년도 2·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2012년도 500명 선발 → 2013년도 300명 선발 → 2014년도 200명 선발 → 2015년도 150명 선발 → 2016년도 100명 선발
→ 2017년도 50명 선발

»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비교

사법시험	구분	변호사시험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 검정	시험 목적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정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	시험 성격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법학과목 35학점 이수자 단,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휴학, 졸업생은 응시 불가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월) 단, 졸업예정자는 학위 미취득 시 불합격
제1차 2월, 제2차 6월, 제3차 11월	시험 시기	매년 1월, 휴식일(1일) 포함하여 5일간 실시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응시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음	응시 횟수	5년 내 5회
- 선택형(1차) - 필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 선택과목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중 1개 - 논술형(2차) :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면접(3차)	시험 방법 및 과목	- 필수과목 :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 공법(헌법,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 선택과목 : 사례형 <택1>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 법조윤리 : 선택형(8월 중 별도 시행)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과목별 과락) - 최근 10년간 평균 합격률 3.87%	합격 결정	과목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과목별 과락) - 제1회 합격률 : 87.15% / 제2회 합격률 : 75.17% / 제3회 합격률 : 67.62% / 제4회 합격률 : 61.10%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43기 사법연수생의 분야별 취업률 (2014.12월 기준)

구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인원	비율(%)	취업인원	비율(%)
법원	46명	6.1	58명	4.2
검찰	40명	5.3	35명	2.5
변호사	377명	49.9	781명	56.6
법무관	179명	23.7	141명	10.2
공공기관	39명	5.2	141명	10.2
기업 등	74명	9.8	225명	16.3
총계	755명	100	1,381명	100

금융감독원 정유희 변호사 (연세대 로스쿨)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크게 ‘감독’하고 ‘검사’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어요. 감독은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검사는 사후에 교정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의 경우 작년까지는 감독 부서에 있었어요.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상품의 약관을 심사하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등)로서 업무를 시작하려는 금융회사를 등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지원팀 이유빈 변호사(이화여대 로스쿨)

“현재 삼성전자 준법지원팀 해외법무그룹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변호사이지만 해외법무를 익히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내변호사는 법무에만 고립되지 않고, 넓은 안목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송 재판연구원 (한양대 로스쿨)

“재판연구원은 재판 업무를 보조하고 연구하는 직역이에요. 주로 재판부에 들어오는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일

과 판결문의 초고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군본부 오윤경 법무관 (제주대 로스쿨)

“군법무관은 군사법기관인 군사법원과 군검찰 운영을 책임지고, 법률전문가로서 군내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군판사나 검찰관 이외에도 징계 및 참모업무, 법제업무, 송무와 국가배상 업무, 장병인권업무, 군법교육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등 군법무관의 활동영역은 다양합니다.”

천안 서북경찰서 이동훈 경감 (충북대 로스쿨)

“지금까지 수사과 지능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고소 관련 보이싱 피싱, 대출 사기, 횡령과 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팀 및 강력팀과 달리 살인 및 강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고발 사건을 접수 및 직접 인지하여 범죄의 여부를 가려내는 일을 하죠.”

통계로 보는 2016학년도 합격자

» 총 합격자수

2015학년도 2,084명 → 2016학년도 2,117명

» 특별전형 입학생 수

2013학년도 128명 → 2014학년도 132명
→ 2015학년도 133명 → 2016학년도 139명(6.57%)

» 성별

남성 1,192명(56.31%), 여성 925명(43.69%)

» 자교 / 타교

자교출신 523명(24.70%) , 타교출신 1,594명(75.30%)

» 법학 / 비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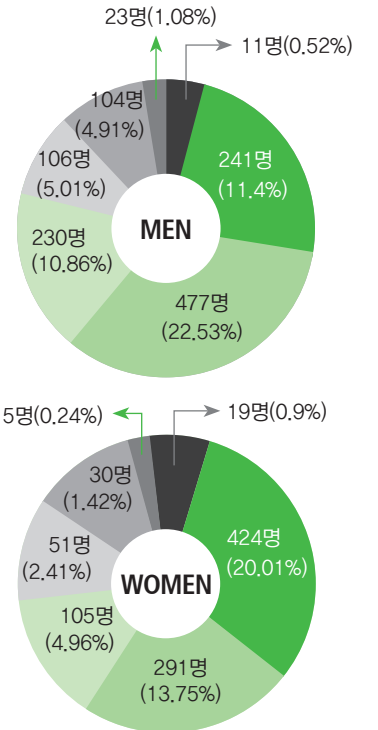
법학사 773명(36.51%), 비법학사 1,344명(63.49%)

»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469	258	727	32	14	46	501	272	773	36.51
사회계열	161	203	364	15	14	29	176	217	393	18.56
상경계열	207	150	357	10	10	20	217	160	377	17.81
인문계열	112	165	277	11	13	24	123	178	301	14.22
공학계열	83	18	101	4	0	4	87	18	105	4.96
사범계열	23	31	54	3	1	4	26	32	58	2.74
자연계열	22	15	37	2	3	5	24	18	42	1.98
신학계열	4	4	8	1	1	2	5	5	10	0.47
예체능계열	2	6	8	0	2	2	2	8	10	0.47
의학계열	6	3	9	0	0	0	6	3	9	0.43
농학계열	6	1	7	0	0	0	6	1	7	0.33
약학계열	4	2	6	0	0	0	4	2	6	0.28
기 타	12	11	23	3	0	3	15	11	26	1.23
계	1,111	867	1,978	81	58	139	1,192	925	2,117	100

» 연령별

- 22세 이하
- 23~25세
- 26~28세
- 29~31세
- 32~34세
- 35~40세
- 41세 이상



로스쿨 입학 수기 ①



김수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7기

들어가며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함과 막연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입학수기를 작성하기 앞서 먼저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던 시간들을 거쳤고 턱 없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결국 법전원에서 원하던 법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저는 학부 4학년 때 학부수업을 들으면서 로스쿨을 준비했습니다. 리트 및 영어성적 준비, 자소서 준비, 면접준비 각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리트 및 영어성적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영어성적을 빨리 만들어 놓으라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는 방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목표하는 점수를 따놓고, 후에는 리트준비에만 집중하실 것을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시험을 보는 정도로만 준비를 했고 따로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보니 리트를 치기 직전까지 토익시험을 보아야 했고 그만큼 심적 부담이 컸었습니다. 영어성적을 빨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리트를 준비하시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것입니다.

리트준비의 경우 저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기본강의를 듣는 정도로 공부했고 로스쿨준비학회에 들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맞추어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학원의 전 커리큘럼을 따라 현장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하신 분도 보았고 혼자 준비하시는 분도 보았지만 리트준비에 왕도는 없습니다. 학원 강의를 따라갈 경우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야 하고 넘쳐나는 정보들을 적절히 걸러 소신껏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공부할 경우에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고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트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리트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대학교 내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회에 가입했었고 리트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정보력에 매우 취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저에게 학회원분들과의 스터디나 정보 공유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과목의 기본강의는 출제의도를 파악하거나 문제를 풀어낼 기본기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트를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리트준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 날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습 때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해도 실전에서 긴장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볼 것,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시간관리나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둘 것을 권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많은 분들이 학원 등을 통한 첨삭지도를 많이 받으십니다. 매끄러운 표현이나 전달력 향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어 보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전달방식이나 과장되고 거짓된 스토리 메이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내가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자소서는 제출 직전까지 끊임없는 퇴고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고,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스스로 다시 읽기를 반복하여 보다 전문적인 표현으로 다듬고 잘 전달이 되게끔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리트를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못 컸던 저는 몹시 무기력한 상태였고 사실 재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면접 한 달 전 급하게 면접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 면접처럼 진행되는 수업과 그 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면접 준비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제와 그에 대한 논거들은 이미 각종 면접 서적, 신문기사, 토론 방송 등에 넘쳐납니다.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많은 논거들을 자신의 주장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꿰어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많은 논거를 댄다고 하여 좋은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면접관 교수님들께 칭찬을 들은 부분이기도 하고 턱 없이 모자란 제 리트성적을 make-up 해준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구성하여 모의면접을 진행해보는 것도 실전 연습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답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듣고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면접 학원 수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어성적, 리트점수,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까지 전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어느 한 부분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영역은 다른 영역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스쿨을 준비하기에 앞서 왜 법조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목표의식이 없이는 로스쿨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법전원에서의 법학공부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품어왔습니다. 이것이 학부 4년을 마치고 씬 없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한 학기 동안의 법학공부를 하기까지 수 없이 마주친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좌절을 마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생각하며 견뎌 내어 보려 합니다. 로스쿨 준비에 왕도는 없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렵고 떨림으로 힘겨워 하실 준비생 분들에게 제 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로스쿨 입학 후기 ②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인제

토익은, 매달 칠 수 있으니 평소에 자주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적은 이미 상향평준화가 되어있어서 합격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일정 성적을 받고 나서는 다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진 않았고 토익 시험만 몇 번 응시하여 원하는 점수가 나온 뒤로는 리트 등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리트는 로스쿨 입시의 합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로스쿨 입시가 있는 해에는 리트와 면접, 자소서에만 투자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리트는 노력 대비 결과가 좋은 시험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가 있고 노력과 운(그리고 실전에서 풀지 않는 강철 멘탈)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점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스터디와 강의를 통해 리트 준비를 했습니다.

추리논증은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들으며 기본 논리학 지식이나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 유형을 탄탄히 익혔고(기본적인 논리학이랑 유형만 파악해도 점수가 확 오릅니다) 그 후로는 문제 풀이 스터디를 통해 서로 풀이법을 비교하며 더 효율적인 풀이를 계속 탐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유명 강사의 현장을 들으며 파이널 모의고사를 직접 가서 풀고 해설을 들었습니다. 언어이해는 기본 강의를 듣고 그 후로는 문제 풀이를 통해 시간 단축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추리논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언어이해는 자신이 있어서 추리논증 대비에 시간을 훨씬 많이 투자하고 언어이해는 남는 시간에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전에선 평소에 늘 잘 치던 언어이해는 망했고 추리논증은 평소보다 잘 쳤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승

리트는 약 1년 정도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면서 실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리트 점수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본 시험장에서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하다 보니 마킹 실수도 했는데,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생각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왜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으며, 변호사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가감 없이 작성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와서 하는 공부는 정말 힘들고 종종 인생에 회의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 왜 입학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필요합니다. 학부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민

LEET가 끝나면 희비가 교차합니다. 하지만 LEET는 여러 평가요소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GPA, 영어성적, 기타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관에 드러난 것 이외에도, 저의 숨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남아있습니다. 단, 교수님들께서는 이미 솔하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셨음을 염두하고, 솔직하게 쓸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 손바닥 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로 썼다가는 탄로 나기 십상입니다.

가능한 모든 경력들은 문서화해서 준비하고, 그 경력들이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자기

소개서에 언급해보면 생각보다 자기소개서 쓰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기 시작하면,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하나 매진해서 준비할 것은 면접입니다. LEET를 잘 본 사람이 마지막까지 웃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면접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LEET 때문에 울더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기회는 면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 약합니다. 틈틈이 읽어두었던 시사와 주요 쟁점 사회적 이슈를 정리해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면접 방식은 다르지만, 상대방의 학교가 면접 때 밑줄도 못 긋고 눈으로만 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지원하는 학교에서 취하는 방식에 맞춰 연습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시설명회 때 물어보고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유나

리트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자소서와 면접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소서나 면접을 망쳐서 떨어지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리트 끝났다고 쉬이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자신을 더 채찍질해서 달리시길 바랍니다.

원서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입시 성공을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정쩡한 두 곳을 써서 좋은 성적임에도 떨어지는 사람도 보았고, 낮은 점수임에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최종합격을 한 사례들도 보았기 때문에 원서전략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간에 단순히 순위 매길 수 없는 곳이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보는 영역이나 중점 부분이 다르고 그만큼 점수 반영비율도 다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학교 홈페이지나 학사일정 등에 공시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요소까지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스스로를 믿고 혼자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안에서 퇴고까지 몇 십번을 넘게 고쳐 쓰고 지우고 엮는 과정을 견뎌내신다면 더 탄탄하고 자신감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2개 정도 병행하여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나 표현 방법, 내용 등이 오가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기소개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같이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면서 첨삭자의 위치에서 글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이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볼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등 매우 세심하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인동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리트, 영어, 학부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장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발전시켜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나 자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준비가 필요하며,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고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녹여내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잘 표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준비 과정이 힘들고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이 관문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신다면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다운

초여름에 느닷없이 법학 적성 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준비해야 했으니 많은 고충이 따랐습니다. 게다가 저는 집안 문제도 함께 도와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석사생의 신분이었으니 식비를 최대한 줄여서 문제집 값을 대어야 할 정도였고, 삼시 세끼 대부분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바람에 건강을 상해서 크게 앓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저의 삶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를 것인지 선택했기 때문에 고된 수험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선택, 그리고 불과 8주에 한 정된 수험 생활에 불만이 스며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제가 합격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로스쿨에 합격한 이후 인문학을 전공했던 학생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에 걱정을 표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상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진리를 추구하다가 갑자기 실체적인 법학을 접하면 적응이 힘들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윤리학과 법학은 좋은 사회와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줄기이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곳곳하게 능력을 갈고 닦는다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현정

로스쿨 입학 전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정량평가라 할 수 있는 1단계 전형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LEET점수와 영어 성적, 그리고 GPA만을 가지고 합격자를 선정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LEET논술 및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학사이지만,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유불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부 시절에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미명 하에 학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량평가에 있어 불리한 점을 안고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LEET 점수를 얻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자기소개서에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나 이로 인하여 얻은 교훈 등을 충실히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LEET와 논술, 자기소개서 모두 글을 읽어내는 능력과 글을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때문에 저는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시간 중 틈이 날 때마다 책을 읽으며 독해 속도와 논리력 함양을 도모하였습니다. 독서실에서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으며, 약하다고 생각되는 추리논증 부분은 추가로 시중의 책을 한 권 정하여 여러 번 반복하며 보강했습니다.

LEET 시험 직후부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한 글을 남들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리뷰를 받고 글을 수정하였던 덕분에 그래도 남들 보기 덜 부끄러운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내가 얼마만큼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큰지, 내가 얼마만큼 실력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회사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사례로 삼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규

언어이해 영역은 어차피 지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기 보다는 독해 속도와 지문 친화력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전감각을 기르기 위해 시간을 재 1주일에 한 번 실전처럼 문제를 풀었고 그 외에는 배경지식이 부족해 읽는데 오래 걸렸던 지문들의 독해 속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과학에 흥미가 많았고, 경제학과 역사학을 전공 하였던 저는 과학, 경제학 등의 지문을 빠르게 이해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가 없던 철학과 예술 분야에 대한 지문은 빠르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위해 예술과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책을 찾는 것도 어려웠을 뿐더러 제게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지식이 아닌 지문 친화력을 기를 정도의 넓고 얇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저는 네이버캐스트의 철학의 숲 등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었습니다. 이후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하는 철학과 예술 지문을 읽는 속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언어이해와는 달리 추리논증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PSAT for LEET 라는 문제집을 주로 보았고, 학원 강사들이 제작한 하프 모의고사 문제들도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했기에 앞부분의 언어추론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고 남는 시간을 논리게임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술직히 LEET 논술은 크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문제만 인쇄하여 풀어보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분량을 맞추기 어렵지는 않은지 정도만 체크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 변별력이 높지 않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논술의 비중이 극히 낮아 논술을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현

사실 제가 로스쿨에 합격한 가장 큰 이유는 운이었습니다. 같은 학부에 로스쿨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같이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의 시작과 끝을 이 친구들과 함께했고, 대부분이 같은 로스쿨에 진학하여 함께 법조인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부 교수님께서도 수시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자기소개서를 직접 검토해 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아무리 외적인 여건이 좋고 운이 좋아도 스스로 필요 공부량을 채우지 않으면 주어진 기회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혹자는 리트, 영어 등의 로스쿨 입시는 법학공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로스쿨 입시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습관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모든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로스쿨 입시는 앞으로 법학공부에 필요한 꾸준한 학습습관과 논리적 사고능력을 훈련하는 기회였습니다. 영어공부를 시작할 때는 5시간에서 시작하여, 리트학습과 리트 실전시험을 대비할 때 까지 공부시간을 점차 늘려 나갔으니깐요. 합격생 모두 제가 했던 것 이상의 학습량을 채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습관을 처음 들일 때는 매우 힘들고 지루할 것입니다. 법을 공부하려 하는데 왜 이런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공부가 정말 안 될 때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다른 것을 하면서 책상에 앉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모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법학공부를 시작하는 동기 분들, 모두 힘냅시다.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 결과

▶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지원자 / 응시자

전체지원자 **8,149** 명(100%) 응시자 **7,579** 명

▶ 성별응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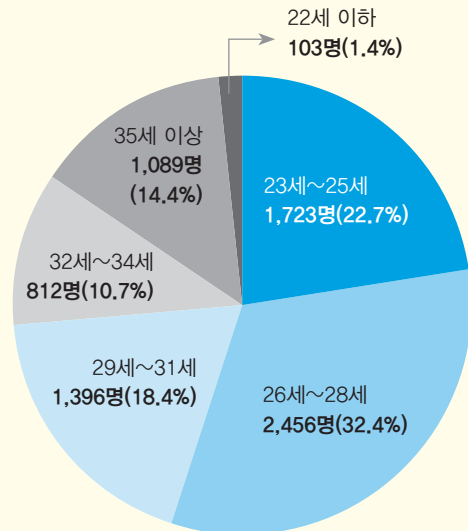
남성 **4,604** 명(60.7%) 여성 **2,975** 명(39.3%)

▶ 계열별 응시자

 **법학** 2,916명(38.5%)
  **사회** 1,154(15.2%)
  **상경** 1,228(16.2%)
 **인문** 1,049명(13.8%)
  **기타** 1,232명(16.3%)

※ 기타: 공학, 사범, 신학, 약학, 의학 등

▶ 연령별 응시자



총 응시자
7,579 명(100%)

※ 연령은 2015. 1. 1. 기준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시험 응시자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와 '2017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임.
-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3. 시험일시 및 장소

-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6. 8. 28.(일)에 실시함.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함.
– '서울'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지망,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수험표 출력 시(8.9.~28.) 배정된 학교 확인)

4.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기간	문항형태
1교시	언어이해	35	09:00 ~ 10:20 (80분)	5지선다형
2교시	추리논증	35	11:00 ~ 12:50 (110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3교시	논 술	2	14:00 ~ 16:00 (12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	310분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을,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임.

5. 출제 기본방향

가. 언어이해 영역

- 언어이해 영역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 특정 전공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인문, 사회, 과학기술, 법·규범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제시문에 기초한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종합적인 독해 능력과 사고력 측정에 집중함.

나. 추리논증 영역

-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 특정 전공영역에 대한 세부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다. 논술 영역

- 논술 영역은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
- 특정 전공에 대한 배경지식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지 않으며,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면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적 응용력과 문제 해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함.

6. 원서접수 및 응시료

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은 7월 5일 09시부터 7월 14일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 <http://www.leet.or.kr>]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기간종료 후 접수는 불가능함.

나. 응시료

-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료는 27만 원임.
- 응시료는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

다. 응시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생계를 같이 함’의 의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함을 의미함.
- 신청방법
1) 응시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2) 증빙서류(아래 참조)를 해당 기관에서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

2016. 7. 1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면제대상여부를 심의하며, 방문제출 불가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888-2034)

• 증빙서류

공통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수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 중 택 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확인서

㉥ 장애수당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응시료 면제 대상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응시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료를 반환함.

1) 접수시간 내 취소신청 : 응시료 전액 환불

접수마감일 7월 14일까지 : 100% (270,000원)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1차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 (7월 15일~7월 21일) : 60% (162,000원)

2차 :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 (7월 22일~8월 4일) : 50% (135,000원)

3차 :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전까지 (8월 5일~8월 24일) : 40% (108,000원)

시험 3일전부터 (8월 25일~) : 0% (반환불가)

7.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9월 20일(화) 오전 10시에 발표하며, 수험생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 및 출력가능.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하지 않음.
 -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여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함.

8.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 대상 :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자 중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음의 해당자.
 - 시각장애인 : 맹인 및 약시, 망막이상, 녹내장 등 질환자 포함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
- 원서접수 시 신체적 장애란에 ‘√’자 기입하고 “편의지원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 서류접수 후 본 협의회가 해당 수험생과 개별접촉을 통하여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9.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무효.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 심각한 부정행위 :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 개인의 의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10.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휴대전화, MP3, PDP 등 각종 정보화기기, 정보저장장치,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 등을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없음.

- 답안지 작성 시에는 시험지 및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과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 답안지에는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OMR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OMR답안지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금지)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 논술 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는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기타 답안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법학적성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법전원 vs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비교

※ 2011년~2015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부터 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분석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인원	비율(A)	인원	비율(B)			인원	비율(A)	인원	비율(B)	
서울대	1,856	17.83	3,192	30.52	-12.69	경성대	1	0.01	1	0.01	0
고려대	1,559	14.98	1,717	16.42	-1.44	강남대	-	-	1	0.01	-0.01
연세대	1,456	13.99	1,210	11.57	2.42	순천향대	2	0.02	1	0.01	0.01
성균관대	678	6.51	705	6.74	-0.23	공군사관 학교	4	0.04	1	0.01	0.03
한양대	592	5.69	642	6.14	-0.45	동덕여대	1	0.01	1	0.01	0
이화여대	686	6.59	540	5.16	1.43	교육대	-	-	1	0.01	-0.01
부산대	222	2.13	274	2.62	-0.49	경남대	3	0.03	1	0.01	0.02
중앙대	208	2	195	1.86	0.13	호남대	-	-	1	0.01	-0.01
경북대	197	1.89	191	1.83	0.07	호서대	1	0.01	1	0.01	0
경희대	301	2.89	188	1.8	1.09	강릉대	-	-	1	0.01	-0.01
전남대	159	1.53	172	1.64	-0.12	배재대	1	0.01	1	0.01	0
서강대	234	2.25	164	1.57	0.68	상지대	2	0.02	1	0.01	0.01
한국외대	252	2.42	143	1.37	1.05	우석대	1	0.01	1	0.01	0
건국대	119	1.14	118	1.13	0.01	서원대	-	-	1	0.01	-0.01
경찰대	89	0.85	114	1.09	-0.24	선문대	-	-	1	0.01	-0.01
동국대	69	0.66	93	0.89	-0.23	기타	-	-	14	0.13	-0.13
서울시립대	129	1.24	86	0.82	0.42	기타 4년제	-	-	34	0.33	-0.33
전북대	84	0.81	66	0.63	0.18	포항공대	40	0.38	-	-	0.38
아주대	61	0.59	43	0.41	0.17	학점은행	24	0.23	-	-	0.23
단국대	27	0.26	40	0.38	-0.12	한국항공대	13	0.12	-	-	0.12
국민대	38	0.37	39	0.37	-0.01	덕성여대	9	0.09	-	-	0.09
충남대	72	0.69	38	0.36	0.33	서울교대	8	0.08	-	-	0.08
숙명여대	121	1.16	37	0.35	0.81	한국교원대	7	0.07	-	-	0.07
동아대	75	0.72	37	0.35	0.37	상명대	7	0.07	-	-	0.07
인하대	54	0.52	36	0.34	0.17	평생교육 진흥원	6	0.06	-	-	0.06
원광대	41	0.39	31	0.3	0.1	성공회대	6	0.06	-	-	0.06
영남대	61	0.59	31	0.3	0.29	경인교대	6	0.06	-	-	0.06
홍익대	73	0.7	16	0.15	0.55	인제대	5	0.05	-	-	0.05
한국방송 통신대	12	0.12	16	0.15	-0.04	대구카톨릭	5	0.05	-	-	0.05
강원대	28	0.27	14	0.13	0.14	대구교대	5	0.05	-	-	0.05
한동대	61	0.59	12	0.11	0.47	청주교대	4	0.04	-	-	0.04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인원	비율(A)	인원	비율(B)			인원	비율(A)	인원	비율(B)	
충북대	47	0.45	12	0.11	0.34	서울여대	4	0.04	-	-	0.04
조선대	26	0.25	11	0.11	0.14	한예중	3	0.03	-	-	0.03
성신여대	20	0.19	10	0.1	0.1	목포해양대	3	0.03	-	-	0.03
광운대	13	0.12	10	0.1	0.03	대전대	3	0.03	-	-	0.03
명지대	9	0.09	10	0.1	-0.01	공주교대	3	0.03	-	-	0.03
한국해양대	15	0.14	10	0.1	0.05	해군사관	2	0.02	-	-	0.02
서남대	-	-	8	0.08	-0.08	한성대	2	0.02	-	-	0.02
인천대	7	0.07	8	0.08	-0.01	을지대	2	0.02	-	-	0.02
경원대	2	0.02	7	0.07	-0.05	울산과학기술대	2	0.02	-	-	0.02
계명대	9	0.09	7	0.07	0.02	송실사이버대	2	0.02	-	-	0.02
경상대	4	0.04	7	0.07	-0.03	부산교대	2	0.02	-	-	0.02
부경대	13	0.12	6	0.06	0.07	한세대	1	0.01	-	-	0.01
경기대	2	0.02	5	0.05	-0.03	한국사이버대	1	0.01	-	-	0.01
육군사관학교	10	0.1	5	0.05	0.05	한국기술교육대	1	0.01	-	-	0.01
독학사	11	0.11	4	0.04	0.07	천안대	1	0.01	-	-	0.01
가톨릭대	19	0.18	4	0.04	0.14	차의과대	1	0.01	-	-	0.01
대구대	4	0.04	4	0.04	0	제주교대	1	0.01	-	-	0.01
영산대	6	0.06	3	0.03	0.03	장로회신학대	1	0.01	-	-	0.01
동의대	1	0.01	3	0.03	-0.02	을지의대	1	0.01	-	-	0.01
제주대	20	0.19	3	0.03	0.16	안양대	1	0.01	-	-	0.01
수원대	1	0.01	3	0.03	-0.02	신라대	1	0.01	-	-	0.01
안동대	-	-	3	0.03	-0.03	서울과기대	1	0.01	-	-	0.01
울산대	-	-	3	0.03	-0.03	백석대	1	0.01	-	-	0.01
목포대	1	0.01	3	0.03	-0.02	동서대	1	0.01	-	-	0.01
세종대	10	0.1	2	0.02	0.08	대전대	1	0.01	-	-	0.01
카이스트	96	0.92	2	0.02	0.9	대구한의학대	1	0.01	-	-	0.01
창원대	2	0.02	2	0.02	0	대구외대	1	0.01	-	-	0.01
순천대	2	0.02	2	0.02	0	금강대	1	0.01	-	-	0.01
관동대	-	-	2	0.02	-0.02	글로벌사이버대	1	0.01	-	-	0.01
청주대	1	0.01	2	0.02	-0.01	광주대	1	0.01	-	-	0.01
서경대	2	0.02	2	0.02	0	가천의과학대	1	0.01	-	-	0.01
한남대	2	0.02	2	0.02	0	가천대	1	0.01	-	-	0.01
부산외대	1	0.01	2	0.02	-0.01	외국대학	183	1.76	-	-	1.76
한림대	2	0.02	2	0.02	0	합 계	10,410	10,458	-	-	
전주대	1	0.01	2	0.02	-0.01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경쟁률

※ 원서접수기간 : 2014. 10. 6 (월) 09:00 ~ 10 (금) 18:00까지

대 학 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18	1	19	19	1	20	39	106	4	110	137	4	141	251	5.89	4.00	5.79	7.21	4.00	7.05	6.44
건국대	38	2	40				40	111	6	117				117	2.92	3.00	2.93				2.93
경북대	57	3	60	56	4	60	120	236	10	246	267	13	280	526	4.14	3.33	4.10	4.77	3.25	4.67	4.38
경희대	56	4	60				60	258	16	274				274	4.61	4.00	4.57				4.57
고려대				114	6	120	120				392	33	425	425				3.44	5.50	3.54	3.54
동아대	38	2	40	38	2	40	80	262	8	270	303	6	309	579	6.89	4.00	6.75	7.97	3.00	7.73	7.24
부산대	66	4	70	46	4	50	120	287	17	304	212	18	230	534	4.35	4.25	4.34	4.61	4.50	4.60	4.45
서강대	19	3	22	18		18	40	165	12	177	192		192	369	8.68	4.00	8.05	10.67		10.67	9.23
서울대	141	9	150				150	521	55	576				576	3.70	6.11	3.84				3.84
서울시립대	45	5	50				50	238	19	257				257	5.29	3.80	5.14				5.14
성균관대				114	6	120	120				645	22	667	667				5.66	3.67	5.56	5.56
아주대	28	2	30	19	1	20	50	208	8	216	197	5	202	418	7.43	4.00	7.20	10.37	5.00	10.10	8.36
연세대				114	6	120	120				443	26	469	469				3.89	4.33	3.91	3.91
영남대	33	2	35	33	2	35	70	214	13	227	271	9	280	507	6.48	6.50	6.49	8.21	4.50	8.00	7.24
원광대	30		30	25	5	30	60	252		252	240	15	255	507	8.40		8.40	9.60	3.00	8.50	8.45
이화여대				94	6	100	100				424	14	438	438				4.51	2.33	4.38	4.38
인하대	25		25	22	3	25	50	137		137	143	5	148	285	5.48		5.48	6.50	1.67	5.92	5.70
전남대	58	12	70	50		50	120	297	23	320	287		287	607	5.12	1.92	4.57	5.74		5.74	5.06
전북대	37		37	37	6	43	80	212		212	247	14	261	473	5.73		5.73	6.68	2.33	6.07	5.91
제주대	18	2	20	18	2	20	40	83	5	88	100	4	104	192	4.61	2.50	4.40	5.56	2.00	5.20	4.80
중앙대	46	4	50				50	293	14	307			—	307	6.37	3.50	6.14				6.14
충남대	50		50	45	5	50	100	205		205	188	15	203	408	4.10		4.10	4.18	3.00	4.06	4.08
충북대	40		40	26	4	30	70	278		278	185	9	194	472	6.95		6.95	7.12	2.25	6.47	6.74
한국외대	30		30	17	3	20	50	170		170	123	8	131	301	5.67		5.67	7.24	2.67	6.55	6.02
한양대	95	5	100				100	517	17	534			—	534	5.44	3.40	5.34				5.34
합 계	968	60	1,028	905	66	971	1,999	5,050	227	5,277	4,996	220	5,216	10,493	5.22	3.78	5.13	5.52	3.33	5.37	5.25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경쟁률

※ 원서접수기간 : 2015. 10. 5 (월) 09:00 ~ 8 (목) 18:00까지

대 학 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가 군			나 군			합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18	1	19	19	1	20	39	109	4	113	144	6	150	263	6.06	4.00	5.95	7.58	6.00	7.50	6.74
건국대	38	2	40				40	124	7	131				131	3.26	3.50	3.28				3.28
경북대	57	3	60	56	4	60	120	196	8	204	220	11	231	435	3.44	2.67	3.40	3.93	2.75	3.85	3.63
경희대	56	4	60				60	197	12	209				209	3.52	3.00	3.48				3.48
고려대				114	6	120	120				406	25	431	431				3.56	4.17	3.59	3.59
동아대	38	2	40	38	2	40	80	307	9	316	319	8	327	643	8.08	4.50	7.90	8.39	4.00	8.18	8.04
부산대	66	4	70	46	4	50	120	236	16	252	174	13	187	439	3.58	4.00	3.60	3.78	3.25	3.74	3.66
서강대	19	3	22	18		18	40	162	6	168	151		151	319	8.53	2.00	7.64	8.39		8.39	7.98
서울대	141	9	150				150	504	56	560				560	3.57	6.22	3.73				3.73
서울시립대	45	5	50				50	166	13	179				179	3.69	2.60	3.58				3.58
성균관대				114	6	120	120				501	25	526	526				4.39	4.17	4.38	4.38
아주대	24	2	26	23	1	24	50	158	5	163	186	6	192	355	6.58	2.50	6.27	8.09	6.00	8.00	7.10
연세대				114	6	120	120				365	33	398	398				3.20	5.50	3.32	3.32
영남대	33	2	35	33	2	35	70	207	10	217	239	9	248	465	6.27	5.00	6.20	7.24	4.50	7.09	6.64
원광대	30		30	25	5	30	60	297		297	269	15	284	581	9.90		9.90	10.76	3.00	9.47	9.68
이화여대				94	6	100	100				331	19	350	350				3.52	3.17	3.50	3.50
인하대	22	3	25	25		25	50	78	8	86	109		109	195	3.55		3.44	4.36		4.36	3.90
전남대	58	12	70	50		50	120	299	22	321	256		256	577	5.16	1.83	4.59	5.12		5.12	4.81
전북대	37		37	37	6	43	80	190		190	217	9	226	416	5.14		5.14	5.86	1.50	5.26	5.20
제주대	18	2	20	18	2	20	40	90	3	93	112	5	117	210	5.00	1.50	4.65	6.22	2.50	5.85	5.25
중앙대	46	4	50				50	176	16	192			—	192	3.83	4.00	3.84				3.84
충남대	50		50	45	5	50	100	127		127	138	14	152	279	2.54		2.54	3.07	2.80	3.04	2.79
충북대	40		40	26	4	30	70	277		277	204	11	215	492	6.93		6.93	7.85	2.75	7.17	7.03
한국외대	26	4	30	20		20	50	146	12	158	114		114	272	5.62		5.27	5.70		5.70	5.44
한양대	95	5	100				100	467	20	487			—	487	4.92	4.00	4.87				4.87
합 계	957	67	1,024	915	60	975	1,999	4,513	227	4,740	4,455	209	4,664	9,404	4.72	3.39	4.63	4.87	3.48	4.78	4.70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2017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5월 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대학명 [특성화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인원)	비 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강원대 [환경법]	40 (20/2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가/부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2명 (군별 1명씩)	각 군별 • 비법학사 : 10명 이상 • 타 대학 : 12명 이상 • 지역인재 : 2명 이상
건국대 [부동산]	40 (40/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50점 • 어학성적 : 200점 [합계 : 650점]	• 1단계 성적 : 6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 서류심사 : 100점 • 기타 [합계: 1,0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2명 (‘가’군)	• 비법학사 : 1/3(13명)이상 • 타 대학 : 1/2(20명)이상
경북대 [IT]	120명 (60/6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면접 : 5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30점 • 구술면접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7명 (‘가’군 :3명 ‘나’군 :4명)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60명 (60/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5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500점]	• 1단계 성적 : 5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6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21명 이상
고려대 [국제 법무 (Global Legal Practice)]	120 (0/120)	• LEET성적 : 200점 • 학부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자기소개서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600점]	『우선선발』 • 1단계 성적 : 600점 • 구술면접 : 적격/ 부적격 [합계 : 600점]	『우선선발』 일반전형 모집 인원의 50%범위 내 에서 선발	당 락 여 부 만 을 결 정 하 는 구 술 면 접 실 시 후 성 적 순 으 로 선 발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일반선발』 • 1단계 성적 : 600점 • 구술면접 : 100점 [합계 : 700점]	『일반선발』 우선선발 제 외, 선발인원 의 3배 이내 에서 선발			
동아대 [국제 상거래]	80 (40/4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200점 • 서류심사 : (‘가’군 : 300점, ‘나’군 : 200점) • 서류심사에 LEET논술 반영 [합계 : ‘가’군 900점, ‘나’군 800점]	• 1단계 성적 : (‘가’군 : 900점, ‘나’군 : 800점) • 면접성적 : (‘가’군 : 100점, ‘나’군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5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씩)	• 비법학사 : 28명 이상 • 타 대학 : 28명 이상 • 지역인재 : 16명 이상

대학명 [특성화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인원)	비 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부산대 [금융· 해운 통상법]	120 (70/50)	• LEET성적 : 2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가’군 : 40점, ‘나’군 : 50점 만점으로 환산) • 논술성적 : 20점 (‘가’군만) • 자기소개서 : (‘가’군 : 20점, ‘나’군 : 3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8명 (군별 4명씩)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20% 이상
서강대 [기업법 (금융법)]	40 (22/18)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30점 • 어학성적 : 20점 • 자기소개서 및 기타서류성적 : 20점 [합계 : 100점]	• 1단계 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2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 비법학사 : 14명 이상 • 타 대학 : 20명 이상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150 (150/0)	〈어학성적 : 지원자격 여부심사〉 • LEET성적 : 80점 • 대학성적 : 100점 • 정성평가 : 120점 [합계 : 300점]	『우선선발』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적격/부적격 [합계 : 300점]	『우선선발』 일반전형 모집 인원의 50%범위 내에서 선발	당락여부만을 결정하는 면접 및 구술고사실시 후 성적순으로 선발	9명 이상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심층선발』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200점 [합계 : 500점]	『심층선발』 우선선발 제외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우선선발 인원 제외하여 선발		
서울 시립대 [조세법]	50 (50/0)	• LEET성적 : 20점 • 대학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20점 • 논술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400% 선발 (특별전형 600%)	총점순위 (단,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성균관대 [기업 법무]	120 (0/120)	〈어학성적 : 지원자격으로만 인정〉 • LEET성적 : 15점 • LEET논술 : 10점 • 대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40점 [합계 : 80점]	『우선선발』 • 1단계 성적 – 80점 • 심층면접 없음 [합계 : 80점]	『우선선발』 • 총점순위 • 일반전형 – 50명 내외		6명 (‘나’군)	• 비법학사 : 41명 이상 • 타 대학 : 41명 이상
			『일반선발』 • 1단계 성적 – 80점 • 심층면접 – 20점 [합계 : 100점]	『일반선발』 • 일반전형 – 192명 내외 • 특별전형 – 18명 내외	총점순위 (단,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50 (26/24)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서면평가(논술포함) : 15점 • 대면평가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7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2명 ‘나’군:1명)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대학명 [특성화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인원)	비 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연세대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 기술]	120 (0/120)	『일반전형』 • LEET성적 : 2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 서류평가 : 25점 [합계 : 85점]	『일반전형 우선선발』 • 1단계 합계점수 : 85점 • 2단계 구술면접 : P/F [합계 : 85점]	『우선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50명 이 내 선발	『우선선발』 구술면접심사(P/ F) 후 최종합격 여부 결정	6명 (나군)	• LEET 논술은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함. • TOEFL은 IBT 만 인정하며 외 국에서 응시한 TOEIC은 인정 하지 않음.
			『일반전형 일반선발』 • 1단계 합계점수 : 85점 • 2단계 구술면접 : 15점 [합계 : 100점]	『일반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우선선 발 제외한 인 원의 300% 내의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특별전형』 • LEET성적 : 2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평가 : 25점 [합계 : 65점]	『특별전형』 • 1단계 합계점수 : 65점 • 2단계 구술면접 : 15점 [합계 : 80점]	『특별전형』 총점 순위에 따라지원자 수를 고려하 여 일정 인원 선발			
영남대 [공익 인권법]	70 (35/35)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면평가 : 20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 씩)	각 군별 • 비법학사 : 1/3이상 • 타 대학 : 70% 이상
원광대 [의생명 분야]	60 (30/30)	• LEET성적 : 3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5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면접성적 : 30점 [합계 : 100점]	모집인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2명 이상 • 타 대학 : 29명 이상 • 지역인재 : 12명 이내
이화여대 [생명 의료법, Gender 법]	100 (0/10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5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우선선발』 • 일반전형에서 30명 이 내 (1단계 전형의 고득 점자 순) • 구술면접 : P/F	정원의 4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34명 이상 • 타 대학 : 34명 이상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50점 • 심층면접 : 150점 [합계 : 1,000점]				
인하대 [지적 재산권, 물류법]	50 (25/25)	• LEET성적 : 20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5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50점]	• 1단계 성적 : 75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200점 •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4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각 군별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대학명 [특성화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인원)	비 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전남대 [공익 인권법]	120 (70/5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12명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전북대 [동북아법]	80 (37/43)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10점 [합계 : 65점]	• 1단계 성적 : 65점 • 논술성적 : 15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제주대 [국제법무]	40 (22/18)	• LEET성적 : 2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5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면접성적 : 40점 – 서류심사 : 40% – LEET논술 : 20% – 구술고사 : 40% [합계 : 1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이내 (가/나군)	• 비법학사 : 35% 이상 • 타 대학 : 35% 이상 • 지역인재 : 10% 이상
중앙대 [문화법]	50 (50/0)	• LEET성적 : 1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영어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심층면접 : 100점 • 기타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60% 이상
충남대 [지적 재산권]	100 (50/50)	• LEET성적 : 120점 • 대학성적 : 5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3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성적 : 100점 • 논술성적 : 면접 시 반영 [합계 : 400점]	정원의 25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각 군별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30명 이상 • 지역인재 : 10명 이상
충북대 [과학기술]	70 (40/30)	• LEET성적 : 100점 – 언어이해 : 50점 – 추리논증 : 5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논술점수 : 100점 • 서류평가 : 30점 • 개별면접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나군)	• 비법학사 : 25명이상 • 타 대학 : 25명이상
한국외대 [국제지역]	50 (30/2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한양대 [국제소송, 지식· 문화산업, 공익·소수 자인권]	100 (100/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220점 • 어학성적 : 110점 • 서류심사 : 22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40% 이상 • 타 대학 : 40% 이상

특별전형으로 입학해 법조인의 꿈을 이룬 사례



“공감하는 판사가 꿈”...

시각장애 극복한 재판연구원

방금까지도 보이던 풍경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급작스럽게 닥친 사고 이후 눈앞에는 암흑뿐이었다. 법조인의 꿈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

이었다. 그러나 사고가 꿈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김동현(33)씨는 20일자로 서울고법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명됐다. 김씨는 민사 34부에 배치돼 2년간 재판부를 보조하며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부산과학교등학교,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를 나온 김씨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던 2012년 5월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했다. 사고에 대해 아직 언급을 꺼릴 정도로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눈은 잃었지만 꿈까지 잃은 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1년을 휴학한 김씨는 다시 학교에 복학했다. 후배들과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는 올해 후배들과 함께 로스쿨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로클럭에 임용됐다.

[연합뉴스 - 2015. 4. 19]

*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던 OO희(여)는 2009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차상위계층)으로 입학하였다. 입학 후 3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그 외에도 매 학기 장학금(2개 학기 동안 학기당 각 300만원, 4학기 동안 월 각 50만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 지방 소재 OO대학교를 졸업한 OO훈(남)은 대학졸업 후 생계를 위해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2010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대상자)으로 입학하여, 3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외에, 장학금으로

1개 학기는 300만원, 5개 학기 동안은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무사히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실무수습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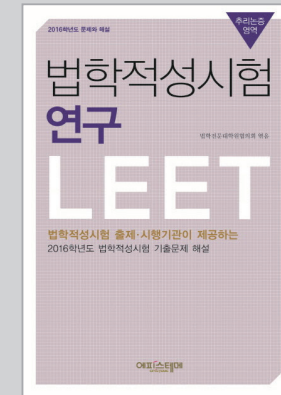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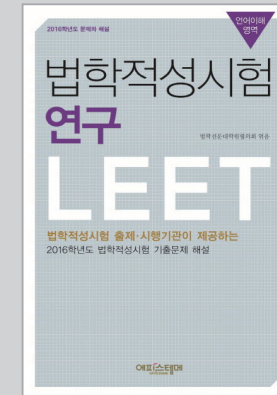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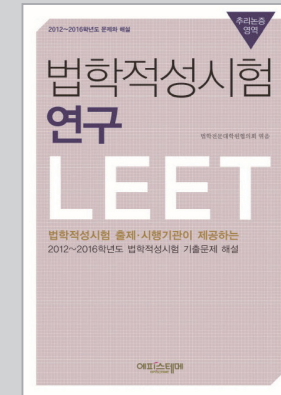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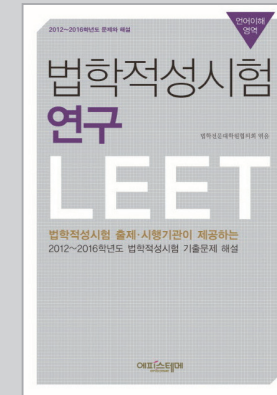
*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당장 다음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진 OO원(남)은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다 지도교수와 장학운영회의 교수들을 찾아가 다음 학기에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았고, 충실히 학업 생활에 전념중이다.

* 만 40세의 나이에 2010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OO주(남)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전문 교수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법무법인 OO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 직장을 다니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결혼을 한 OO영(여)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출산을 하였다. 재학 중에 결혼을 하여 학업과 출산, 육아의 병행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숙사 제공의 배려를 통해 가능하였다. 현재는 조달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OO제(남)은 2011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애인 특별전형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의료는 동네에도 병원이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을 떼이거나 단순한 폭행사건이 있을 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참는 것이 현실이구나.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였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해도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수년이 걸리는 시험을 뒷바라지 해줄 집안 형편도 아니었고,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사법시험의 특성 때문에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꿈을 접어가던 중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계속 변호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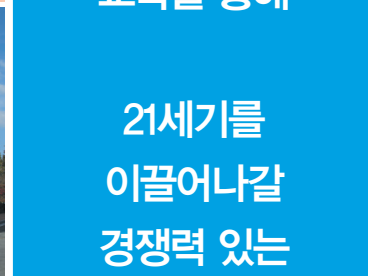
「법학적성시험 연구」 발간



이해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기출문제 해설 수록

-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음
- 내 용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각 1권
- 가 격 별쇄본(2016학년도) 각 8,000원
통합본(2012~2016학년도) 각 22,000원
- 구입처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